

日本석유업계 기간계약 원유도입 확대

최근 일본정유업계는 中東산유국과의 기간구매 계약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中東산유국과 日本정유업계의 관계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물시장의 상대적 위축과 함께 그동안 원유거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종합상사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다. 이러한 거래형태의 변화는 日本측으로서의 향후 예상되는 석유시장의 공급압박에 대비한 안정적 공급선 확보라는 측면에서, 中東산유국으로서는 현재 공급초과의 석유시장에서 안정적 판로확보 측면에서 적극 추진되고 있다.

日本(정유업체 및 종합상사)의 中東산유국과의 기간구매계약비중은 지난 2년동안 전체적으로 변화가 없었던 반면, 정유업계의 기간구매계약비중은 계속 확대되어 왔다. 日本 국내 5大精油社(일본석유, 코스모석유, 이데미쓰석유, 셀석유, 미쯔비시석유)의 중동 원유기간구매계약량이 1987년 7월이후 24.7% 증가하였다(46.5만b/d→58만b/d). 日本 정유업계는 그동안 기간구매계약을 초과하는 수요를 종합상사를 통한 현물구매로 충당하여 왔다. 그러나 기간구매계약에 의한 원유직거래가 활발해지자 정유회사의 현물구매비중은 현저하게 감소되어 종합상사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지난 3~4년 동안 종합상사를 통한 현물구매비중은 총원유수입량의 30~35%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되어 금년 하반기에는 20~25%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기간구매계약을 통한 원유직거래는 輕質油의 경우 더욱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아부다비와 카타르産 원유는 높은 휘발유 및 輕油(mid-distillate)收率 때문에 높은 프리미엄(기간구매계약보다 20~25¢/b)으로 현물시장에서 거래되어 왔다. 이와 더불어 경질유공급 압박우려가 가세, 정유업계의 기간구매물량확대를 재촉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인은 작년 中東산유국이 對極東기간계약가격을 현물시장에 連動시킨 조치이다. 이러한 조치로 가격경직성의 기간구매계약이 현물시장과 기간계약의 장점을 고루 갖추게 되었다.

中東산유국은 원유수요침체에 대비한 원유의 지속적 및 안정적인 판로확보는 물론 價格등락이 심한 현물시장의 회피라는 두 가지 利點때문에 기간구매계약 확대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기간구매계약확대는 쿠웨이트처럼 일본의 하류부문진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산유국에게는 교두보확보라는 전략적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중동산유국은 그동안 몇 가지 문제점때문에 종합상사를 통한 원유거래를 기피하여 왔다. 과거 많은 양의 원유가 한꺼번에 종합상사에 인도되면 일부가 현물시장에 유출되어 가격조작에 이용되는 사례도 종종 있었다. 또한 원유인도시 현물유가가 약세일 때 의도적인 항만구역작업지체로 인해 수송장애가 초래된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원유구매형태의 변화가 가격과 시장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기간구매계약의 증대가 역으로 현물시장의 가격프리미엄을 縮小시키는 현상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오만産 原油가 현물시장에서 종전의 25¢/b 할증에서 오히려 15¢/b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일시적인지 또는 장기적인 추세로 정착될 것인지의 속단하기 어렵다. 어쨌든 日本정유업계가 장기적인 공급불안을 전제로 하는 한 또한 산유국이 안정적인 수요처로서 일본과의 관계강화를 도모하는 한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에너지동향〉